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6월 14일 (제79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고인 물은 썩는다

필리핀 세부에서 저녁집회를 위해 잠시 눈을 붙였는데 한 꿈을 꾸었다. 큰 호수와 작은 호수가 보이는데 그 물이 모두 썩어있었다. 그래서 진땀을 흘리며 혼자 그 물을 모두 퍼내니 생수가 솟기 시작했다. 큰 호수는 필리핀이었고, 작은 호수는 세부였다. 이미 퍼낸 물은 걸러서 맑게 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깨보니 꿈이었다.

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고착된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의 고착된 신앙을 걷어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혁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

그렇다. 고인 물은 썩듯, 고착된 사고 속에서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신앙은 물론 생각에 혁신이 요구된다. 내가 늘 말하듯 혁신(革新)이란 묵은 때를 벗겨 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는 대변혁을 말한다.

나는 파나마 운하를 보면서 생각의 틀을 깨면 가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한 사람의 파격적인 생각, 엄청난 상상력이 세계지도를 바꾸고,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을 보고 생각의 파워에 새삼 놀랐다. 30년 전, 단 한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세계를 교구화하겠다는 엄청난 생각을 품었고, 노력했다. 마침내 그는 70여 개국에 선교를 하는 자가 되었다. 생각이 이루어낸 것이다. 누구 이야기일까?

물이 흘러야 하듯 생각도 흘러야 한다. 썩은 생각은 썩은 결과를 낳을 뿐, 고착된 생각, 교과서적인 생각, 형식에 멘 생각, 우물 안 개구리의 생각은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창조(創造)란 기존의 생각을 깨는 것이다. 파격적인 생각, 이상한 생각이 곧 창조의 기틀이다. 창조를 모험(Adventure)과 동일어로 보는 것은 생각을 깨는 것이 모험이기 때문이라.

썩은 생각을 퍼내자. 맑은 생각, 신선한 생각으로 씻어내자.

헌신한 자들의 뜻을 기억하자

6월은 국가에 충성,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 그리고 6.25 전쟁기념일까지 1년 중 여러모로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달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다지만, 실로 그 역사는 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의 진보는 결코 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 땅 곳곳에 묻어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처절한 삶으로 이 땅을 지키고 건설해왔는지 알아야 한다. 역사를 모르는 개인이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내일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통치로 국가를 잃은 우리 민

찾아볼 수 없는 다국적인 지원 아래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다.

헌신(獻身)이라 함은 몸을 바치는 것이다. 곧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뜻한다. 국가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이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다. 오늘의 번영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 희생과 헌신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고 다음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간곡히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애굽의 압제에서 홍해를 가

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성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 가운데 수많은 헌신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이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평화통일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주변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생존번영해갈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족이 끊임없이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의 의지를 불태울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의 광복을 꿈꾸며 죽어갔다. 힘겹게 세운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벅찬 기대를 일시에 붕괴시킨 6.25전쟁은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離散)의 고통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16개국의 젊은 병사들이 이 름도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죽어갔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북한 및 중공군과 사투를 벌인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우리는 우리 선열들의 피뿐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찾아와 죽어간 16개국의 젊은 피, 그리고 그 유족들 또한 기억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그 유례를

르며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있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는 순간, 다시 압제의 사슬 아래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제 갈 길로 가다가 2천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떠돌아야 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개인이나 국가나 은혜를 잊으면, 방종하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거울이다. 우리가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피로써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이들,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켜낸 선열들의 피,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

위해, 그들이 꿈꾸고 바랐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오는 6월 25일 저녁 8시, 우리는 다시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현 핸드볼 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부천, 잠실, 시청광장, 대구에 이어 계속되는 기도성회에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당신의 한 통화가 세계를 복음화 한다!

ARS 060-700-0688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수1:5~9)

두려움은 인생의 암이다

요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있습니다. 학교가 휴업을 실시하고, 모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며, 우리 인생의 암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전술 중 하나입니다.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것은 공포조성으로 인한 심리전입니다. 공포(恐怖), 즉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주어 싸우지 않고 전쟁에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욥기서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욥3:25)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질 것은 ‘담대함’입니다.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과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시91:5~6)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수1:9).

하나님이 대책 없이 무조건 “담대해라,

두려움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담대해야지.” 하고 우리를 억박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과 함께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 뒤에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신31:8),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사41:10).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도 이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그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대상28:20). 어둔 밤길 갈 때 아버지가 옆에 있어주

면 하나도 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다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데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하룻강아지라서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골리앗을 상대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는 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산천을 떠났지만 그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

던 것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고, 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니 엘리사 자 굴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사자 굴에 먼저 계시는 하나님, 불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이 훼방하고 협박하자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금히 크시고 두려워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느4:14)고 백성들을 독려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자 무서워 난리를 치며 주무시던 주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8:26). 당신의 기업에,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풍랑이 일었을 때, 과연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D. L. 무디가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마친 후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암초에 부딪쳐 배에 물이 팔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이 결사적으로 물을 막으려고 해도 그 배는 기울어만 갔습니다. 700여명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선실에서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는데, 아들이 선실로 뛰어 들어와 사태를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배 위로 올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91편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

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

라”(시91:9~11)는 말씀을 읽어준 뒤 격정하지 말라고 하고는 다시 선실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잤습니다. 다들 밤새 떨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이튿날 무디의 말대로 모두 무사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으니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 목회 30년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공갈 협박도 많았고, 매스컴을 통한 때도, 말도 물도 설은 해외 집회에서의 갖은 일들은 저를 힘들게 했고, 두렵게 했습니다. 만일 저 혼자였다면 벌써 손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하나님과 함께 다시 가려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인 아브라함도 죽을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창12), 모세도 대업을 감당하기 두려워 떨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

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린 비자 앞에서도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두려움에 젖어있던 그가 성령을 받더니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담대한 일성(一聲)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심리전이다

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3~24).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업을 이루려면 담대함은 필수입니다. 현대그룹의 고(故) 정주영 회장은 영국 선박회사에서 차관을 얻으려 할 때,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 짜리 지폐를 내어놓으면서 “당신네 영국의 조선역사가 1800년대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쳤소. 다만 쇄국정책으로 인해 산업화가 늦어졌지만 우리는 조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소.”라고 담대하게 말해서 오늘의 조선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배짱이라고 하지요? 세상사에도 이 배짱, 담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지분을 뚫어서라도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낫게 하겠다는 담력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르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합시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5~6).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오늘, 안녕한 하루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고가는 인사 가운데 솔하게 되
낸 말일 것이다. ‘안녕(安寧)’이란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 아무 탈 없이 평안
하셨는가?

무탈하여 평안하고 싶은 거야 모두의 바
람이겠지만 현실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
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돈 때문에, 누구
는 건강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는 불확실
한 미래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간
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나
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은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
스가 ‘안녕한 삶’에 가장 큰 장애요소라는
것이다. 그 대상이 때론 가장 가까운 가족
일 수도, 직장 상사나 부하, 거래처 사람
과 같은 사회구성원일 수 있다. 때론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일 수
도 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밋
다고 깔짝깔짝 사람의 마음을 긁어대는 사
람이 있는가 하면, ‘돈 있네, 힘 있네’ 제대
로 갑질 해대며 사람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개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앞에선
안 그런 척, 그러나 뒤에선 사람들 불러 모
아 없는 얘기도 만들어서 사람 망신을 주
는 이도 있다. 참... 마음 같아선 제대로 한
번 콧 들이받고 싶은데 현실의 문제는 요
원하기만 하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외로 하나님
이 인정하셨던 그에게도 속을 박박 긁어놓았
던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 질투의 화신으
로 끊임없이 다윗을 위협하던 사울은 다

름 아닌 그의 장인이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넘긴 십 사람들과 도역과 같
은 이들도 있었다. 배신자 아히도벨은 압
살품과 작당하여 모반을 일으켰고, 시므이
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
다. 비단 다윗뿐만 아니다. 요셉에게는 형
들이, 아람에게는 삼촌 라반이, 모세에게
는 누이가, 바울에게는 구리세공업자 알렉
산더가,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있었다.
성질대로 해보아, 판을 엮어보아 나만 손
해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
야 할까?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
라’고 권면한다. 그러면 ‘그가 우리 마음
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말씀한다. ‘여호
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
하지 말라는 것이다(37:1~2).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로는 지금껏 주
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기뻐하라
는 것이다(37:9~10). 잠언 17장 3절은 “도
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
고 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
람을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붙여서 다듬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오늘 하루 안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주제는 무엇일
까?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있다. 악한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미혹되지 말자.
악한 것들이 쳐놓은 올무에 스스로 빠지
지도 말자.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가늘게 새끼를 꼬거라

선달 그믐날 저녁, 주인이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벋단을 한
단씩 주며 새끼를 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가는 새끼를 꼬라고
하고는 주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
다.

종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선달 그믐날 밤에 새끼를 꼬
라는 거야?”

“진짜 지독한 주인이야. 우리가 쉬는 걸
못 보는군.”

다들 한 마디씩 하며 입을 있는 대로 내
밀고 새끼를 꼬니다. 어떤 종은 이 많은
걸 언제 다 꼬냐며 굵게 대충대충 꼬는
가 하면, 어떤 종은 꼬다 말다를 반복했
습니다. 그런데 그 중 나이가 제일 많은
한 종만은 주인이 말한 대로 아주 가는
새끼를 말없이 꼬아나갔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다
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인의 손
에는 크고 묵직한 주머니가 하나 들려
있었고, 하인들도 다들 밤새 자기가 끈
새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들 했다. 너희들이 그동안 너
무 애썼기 때문에 내가 포상을 하려한
다. 이제 너희가 끈 새끼줄에 동전을 쫓
을 수 있는 만큼 가져가거라.”

주인의 말에 종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냐하면 자기들이 끈 새끼줄은 너무 굵
어서 엽전을 끼우면 다 떨어지기 때문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종, 곧 주인의
말대로 가는 새끼를 꼬았던 종은 엽전
을 여한 없이 쫓아서 종살이를 면했습
니다.

우리 목사님이 귀가 따갑게 하시는 말
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
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눅16:10). 그런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도 많이 들으셨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25:21).

콧바람에 날아가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됩니다 .

예수중심편집실



::성경에세이::

영적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라!

여보게!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
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네. 그 중 몇
말씀을 옮겨볼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속7:10),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신24:21), “하나님 아버
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
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
는 이것이니라”(약1:27), “너의 중에 분깃
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
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
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14:29)....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셨을까? 그 이유가
시편 68편에 기록되어 있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시68:5).

그런데 말일세, 나는 육적인 과부와 고아

를 돌보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지
만, 영적 과부와 영적 고아를 긍휼히 여기
고 그들을 돌보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시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과부란 남편이
먼저 사망하여 혼자인 경우이고, 고아란
어떤 이유로든 부모가 없는 것이라면, 영
적 과부란 예수 신랑을 잃어버린 자이고,
영적 고아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이기 때문이지. 어찌 보면 영적 과부와 영
적 고아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할 수 있だね.
안 그런가?

자네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네. 그런데 그 신랑을 잃어버리
고 사는 자들이 많네. 그 신랑의 사랑을 받
지 못하고, 그 신랑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
네. 어디 그 뿐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
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잃고 고아
로 사는 자들이 그 또 얼마나 많은가! 그리
니 이 세상길이 얼마나 힘들까? 6·25 때
어린 것들이 졸지에 부모를 잃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는가.
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를 다니는 것

은 어찌 보면 영적 과부에게 신랑을, 영적
고아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려는 것이
라네.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나는 군. “내
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
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으로
다”(고후11:2).

이보다 좋은 일은 없네. 세상 중매야 잘못
서면 뽕이 석 대라지만, 이 영적 중매는 하
나님께도 칭찬을 듣고 당사자에게도 감사
받을 일이라네.

여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
어서 ‘경건’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
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
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
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
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1:27)는 말씀
대로 사는 것이라네.

우리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고
육적, 영적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자가 되
세나.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몇 년 전, 이탈리아의 폼페이라는 도시를 방문했
다. AD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 20m가 넘는 화산재
는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버렸다. 빨리 도망쳐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
들은 고온 가스와 열구름에 질식하거나 뜨거운 열
에 타 죽었다. 이 때, 폼페이 인구의 약 10%인 약
2,000명이 도시와 함께 운명을 함께했다. 당시
폼페이는 수로를 확보하고 공용 수도가 있을 정
도로 철저하게 로마화가 진행된 성공적인 도시요,
세계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이런 외적 모습과
달리 폼페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소굴이자 성적으
로 타락한 도시였다. 거리 곳곳에는 부귀를 가져
다준다고 믿는 남근을 형상화한 상징물이 있었고,
매춘 및 동성애, 동물과의 수간이 성행했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하루 만에 도시 전
체를 화산폭발로 쓸어버리셨을까?

최근 서울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허락되고
이를 허락한 시장은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이 동
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
에 맞춰 ‘메르스’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대
한민국에서 전염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
다. ‘메르스’와 성적타락, 이 둘은 결코 우연이 아
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를 통해 하나
님의 경고를 보았다. 그러므로 ‘메르스’를 하나님
의 싸인(sign)으로 여기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내가 매일 기쁘게::

::참된 깨달음::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지난 5월 중동 바레인 지역에서 귀국한 한 남성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되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발발되기 시작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메르스.’

귀국한 이 남성은 병원을 찾아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병원에서는 메르스를 의심해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취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바레인 지역이 전염 위험국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의 검사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부처의 적절하지 못한 처치로 인해 10일 기준 108명의 환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9명이 사망하였으며, 약 3000명이 격리된 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병원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대한민국은 메르스 3차, 4차 감염여부를 예의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경고

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환자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병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보유한 채 해외로 출국하였다. 그는 출국 당시 보건소에 그 사실을 알렸지만, 해당 부처는 환자의 보고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였다. 병원의 경고를 무시한 그는 현재, 외국의 한 병원에 격리된 채 치료를 받는 중이다. 그리고 전염병 바이러스를 보유한 한국인을 출국시킨 대한민국은 이제 동북아에 메르스를 전염시킨 대표국으로 낙인찍히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중동 지역을 제외한 메르스 감염자 수가 1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크고 작은 경고를 무시한 결과, 엄청난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위기가 직면한 현 시점에서 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메르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복기(2일~14일)로 추정되는 시간 동안 자택 격리에 있어야 하는 한 사람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방의 한 골프장을 찾은 것이다. 보건소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일행 15명과 버스를 대절해 떠난 이 사람의 행동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외에도 많은 격리 대상자들이 경고를 무시한 채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안전불감증에 얼마나 깊게 빠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다. 여기저기서 보내는 경고를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나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나만 아니면 된다’라거나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접고, 지금부터라도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전훈지

ppjee@hanmail.net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전도서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 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12:13~14).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입니다. 천국이라는 확실한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행복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산모들은 분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많은 질문들을 하곤 한다. 가장 궁금한 것이 유도분만과 제왕절개에 관한 것이다. 분만은 산모와 태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일정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개 산모 10명 중 8명은 임신 37주에서 42주 사이에 분만을 하며 10명 중 1명 정도의 산모는 37주 이전에 분만한다. 그렇다면 남은 한 명은? 임신 42주를 넘어 임신이 지속되는 경우를 과숙임신이라 한다. 보고에 따르면 42주를 넘겼는데도 태아가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태아와 산모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고 양수의 양이 줄어들거나 신생아가 태변을 흡입할 가능성이 커져 진통이나 출산 중 신생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때문에 임신 41주에 이르면 유도분만을 시행하게 된다. 하루 전날

입원하여 자궁경부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질정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약물이라기보다 원래 진통이 시작되면 임신부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성분과 같은 것으로 다만 유도분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것이다. 마치 알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것을 신호로 산모가 분만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도분만이라고 인위적인 약물의 조작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유도분만이라고 통증이 더 심한 것은 아니며 제왕절개의 확률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출산이 늦어지는 지연분만의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제왕절개란 복부와 자궁을 절개해 태아를 분만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진통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골반이 매우 좁아 난산이 예상

되는 경우, 임신부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쌍둥이 등의 다태아인 경우 제왕절개를 사전에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은 자연분만을 시도하게 되며 자연분만의 가능 여부는 분만의 진행이 어떠한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진통에 따라 자궁경부가 어느 정도 열려가고 있는지, 또 태아는 어느 위치까지 내려왔는지 시간마다 확인해가며 분만이 이루어진다. 제왕절개를 했다고 해서 산모의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제왕절개 역시 일반적인 분만과 유사한 과정이므로 특별하게 산후조리를 할 필요는 없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단겠느냐 하시니라”(사66:9).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웃음으로 얻는 복!

사람의 얼굴은 대략 80개의 근육으로 이뤄져 있으며, 무려 7,000여개의 표정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근육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부위가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감출 수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온갖 상념이 스스로없이 세상 밖으로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웃다가 원하는 것까지 얻고,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다가 가진 것까지 잃는다.”는 말처럼 사람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꾀적, 인생관, 사고방식, 또한 선함과 강인함, 용맹함과 지혜로움, 엄숙함과 온유함, 사나움, 강박함 등이 그대로 깊숙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인 분들은 흉한 표정의 얼굴이 그대로 새겨져 매섭고 사나운 인상이 되어버리지만, 늘 많이 웃고 기뻐하는 분들은 웃음선 데로 주름이 잡히면서 웃는 인상, 온화한 인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나무가 한 해, 한 해를 지나며 나이에가 만들어 지듯, 사람의 얼굴에도 누적된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긋한 배려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한 너그러움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함과 온유함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향기는 아니죠.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2:15)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와 환한 웃음은 그 어떤 재물보다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계시나요?



인류는 그들이 무엇이나가 아닌
무엇처럼 보이느냐로 평가된다
이제 눈을 떠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냐라
(사무엘상 16장 7절)